

# 이번엔 전기요금 인상...위기 내몰린 지역기업들 죽을맛

### 오늘부터 산업용 9.7% 올려 기업부담 가중...유류세 인하 폭도 줄여 “고물가·환율·고금리도 힘든데...경영활동 위축·경쟁력 저하 불가피”

정부가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지역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3일 유류세 인하 연장이 결정됐지만 인하 폭이 전보다 축소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고정부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산업계는 이미 '3고'(고물가·환율·고금리)로 한계에 직면해 있는데 이번 전기요금 차등 인상 조치가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고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국민 경제 부담과 생활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인상되며, 이중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 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

서 173.3원으로 5.2% 인상된다. 산업용 고객은 약 44만호로, 전체 한전 고객(약 2500만호)의 1.7% 수준이지만 전체 전력 사용량에 차지하는 비율을 53.2%다. 국내 전력 사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의 전기요금을 인상해 한전의 '역마진' 구조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산업계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내 산업계는 고물가·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에 놓였다”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 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며 “기

업들이 미래계획과 경영전략을 현실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향후 전기요금 조정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기업별로 차등화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무탄소에너지 투자촉진과 기술개발강화 등의 후속대책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와 같은 날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당초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데 따른 부담도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지만,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담보다 42원, 41원 오른다. 액화석유가스(LPG) 부담도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축소돼 L당 14원 오른 156원이 부과된다. 지역 산업계 종사자들은 이날 막막함을 표출했다. 냉방기기 부품을 생산하는 한 기업 대표는 “생산물량이 20% 이상 줄어 직원 인건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답답한 심정”이라며 “기업들을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탄식했다. 또다른 기업 대표는 “최근 기준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한시름 더는 것 같았는데, 이번 전기요금 인상 발표로 또다시 걱정거리가 생겼다”면서 “전기요금 차등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도·이전 공공기관, 나주 혁신도시 활성화 등 협력

### 20여명 참석 상생협력 간담회

전남도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나주 혁신도시 한식당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지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이전 공공기관장, 나주시장, 한국에너지공단 교무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간담회를 통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부족기관 유지,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지역 물품 우선 구매,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등 공헌사업,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사업 등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지역인재채용의 경우 목표비율(30%)은 충족하지만 의무채용 과정에서 적용되는 예외가 확대되면서 실제 지역인재채용 인원수는 감소세에 있다는 게 전남도 분석이다. 김영록 지사는 “혁신도시가 5만 자족도시를 넘어 시·군 지자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거점도시 역할을 하면서 명품도시로 도약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3일 나주 혁신도시 한식당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오른쪽 두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16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광주·나주와 함께 ‘생활SOC복합혁신센터’, ‘빛가람복합혁신센터’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공을 쏟고 있다. 올해도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국토부와 공동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지원 간담회 개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남도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남도 문화탐방, 지역주민과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제10회 빛가람 페스티벌 등을 개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TP, 디에어·중국 무인항공기 기업 MOU

### 합자법인 설립 신사업·기술 교류

광주테크노파크(이하 광주TP)는 23일 “광주 소재 드론 전문기업인 ㈜디에어 및 중국 무인항공기 제작기업인 유나이티드 에어크래프트와 미래 모빌리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자법인 설립 지원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광주TP 김영집 원장과 ㈜디에어 정영석 대표, 유나이티드 에어크래프트 맹윤희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 기업의 합자법인 설립 등 협력의 지를 함께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 미래모빌리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사업 발굴 및 기획 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관 간 기술교류 및 협력체계 기반 마련 ▲합자법인 설립 이후 행정적 지원 ▲광주TP 보유

인프라(장비 등) 활용 지원 및 신시장 개척 지원 ▲기타 세 기관의 공통 관심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TP는 기반산업본부 모빌리티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주축산업인 모빌리티 관련 중·중소기업을 발굴 및 집중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디에어와 중국 유나이티드 에어크래프트는 지난 9월 100억원 투자 및 합자법인 설립을 위해 두 기업이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에 합자법인 설립과 산업용 드론, 무인항공기 및 향후 도심항공교통(UAM) 공동개발 및 제품생산을 위한 공장 설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영집 광주TP 원장은 “광주기와 손을 맞잡은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시장 창출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원석 기자 chadod@kwangju.co.kr



## “통섭의 시대, 융합력 갖춘 T자형 교육 필요”

### 광주상의 경제포럼 세미나

“21세기는 모든 것을 섞어 하나로 이어지는 통섭의 시대로, 지식의 대통합이 이뤄지는 시대에 적합한 적응력과 융합력이 필요합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지난 22일 오전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조명한 월드비전 회장을 초청해 ‘제 4차 산업혁명, 통섭형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라는 주제로 제 272차 광주경제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광주·전남지역 기업 CEO,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조 회장은 이날 강의에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만나고 지식을 습득하면서 겪은 통섭형 사고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문과 고교생으로 이과를 택해 건국대 미생물학과에 진학한 뒤 유전공학을 전공으로 유학길에 올랐다가 다시 번역학으로 바꿔 공부한 계기, 미국에서 귀국해 건국대 생물학과 교수로 부임한 뒤 개교 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만난 노벨상 수상자 바로크 블롬버그 박사와의 인연 등을 재미있게 설명했다. 또 스탠포드대와 실리컨밸리

에서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과 만나 자연과학 뿐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등을 섞은 통섭으로 에이즈 퇴치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조 회장은 “현재는 하나의 전공 영역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라며 “다른 분야와 융합 가능한 적응력을 갖춘 T자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로, 세로 선이 만나 T라는 글자를 이루는 것처럼 한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영역과 융합·협력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T자형 교육이라고 했다. 한편,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이날 ‘밥피어스아너클럽’ 위촉식을 갖고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겸 ㈜다스코 대표이사과 임순이 삼성생명 상무 겸 조선대 겸임교수를 ‘밥피어스아너클럽’ 회원으로 위촉했다. 밥피어스아너클럽은 월드비전 창립자인 ‘밥피어스’의 이름을 딴 고객 후원자 모임이다. 누적 후원금이 1억 원 이상인 후원자 중 다양한 지구촌 문제에 공감하고,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는 후원자를 회원으로 위촉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광주·전남 중기청 ‘레전드 50+’ 프로젝트 진행상황 점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3일 전남도와 함께 ‘레전드 50+’ 프로젝트 진행상황 점검과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레전드 50+ 중기부가 정책자금과 바우처(수출 등), 스마트공장 등 기업 수요가 높은 정책수단을 3년간 패키지 지원해 국내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 달성한다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성장모델이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지난 2월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부품육성 프로젝트 참여기업 44개사 선정하고 지원기업별 세부지원 사업을 확정한 후 지원 중에 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도와 프로젝트 발전 방안 공유, 참여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종래 청장은 “지역이 주도하여 기획한 프로젝트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레전드 50+’ 정책이 지역중소기업 대표 성장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특화프로젝트 정책수단에 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99.62 (+28.92)
▲ 코스닥	745.19 (+6.85)
▲ 금리(국고채 3년)	2.936 (-0.007)
▲ 환율(USD)	1382.65 (+2.55)

## HS효성첨단소재 베트남 맹그로브 숲 살리기 팔 걷었다

### 메콩델타 맹그로브 프로젝트 2ha 부지에 나무 4000그루 심어

HS효성첨단소재가 베트남 맹그로브 숲 살리기 사업에 나섰다.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 22일 베트남 짜빈성 미롱남 마을에서 베트남 현지 사회기업 ‘맹그로브’와 함께하는 ‘HS효성첨단소재 메콩델타 맹그로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봉사단은 이날 맹그로브 숲에 묘목 5000그루를 심었으며, <사진> 앞으로 총 2ha 부지 내에 4000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베트남은 HS효성첨단소재의 주요 해외 거점이다. ‘HS효성첨단소재 메콩델타 맹그로브 프로젝트’는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맹그로브 수종의 연구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베트남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첫 활동으로 식재 및 관리, 지역 주민 대상 교육 등을 통한 지역 상생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S효성첨단소재 ESG 관계자는 “국내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에 이어 베트남 지역의 맹그로브 숲 복원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HS효성첨단소재는 국립생태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멸종위기식물인 전주물꼬리풀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충남 서

천, 울산 울주 멸종위기 밀원식물 정원 조성, 유부도 내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등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존 및 증진 활동에 나서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금호타이어, 자동차연구원과 타이어 주행 성능 향상 협약

금호타이어는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함께 고성능 차 타이어 주행 성능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금호타이어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지난 22일 광주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퍼포먼스 센터(KPC)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축적된 타이어 개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성능 타이어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기로 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주행 성능 테스트 및 분석을 지원해 타이어 전반의 성능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호타이어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타이어 개발 과정에서 지역 내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조만식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고성능 차량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자동차 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현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지역본부장은 “금호타이어와의 협력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